

이화장 소장 미술품의 4·19 이후 처리경위

-대통령기록관 소장 「李博士 財産台帳」(1970)의 검토

윤인수(尹仁洙)

I. 머리말

II. 4·19 이후 이화장 집기·미술품 조사

1. 조사 경위
2. 처리 결과

III. 1970년 청와대 집기 및 미술품의 이화장으로 추가반환

1. 반환 경위
2. 대통령기록관 소장 「고이박사 재산처리」의 첨부문서 「李博士 財産台帳」의 내용
3. 반환 이후

IV. 맺음말

※ 원문영인자료: 「李博士 財産台帳」

문화재청 칠백의총관리소 학예연구사, 행정안전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 취득

주요 논저: 「일제시대에 발생한 대한제국시기 임명장 위조의 양상과 사회적 배경」, 『고문서연구』 34(2009); 「명대 동기창의 조선 표전·자문지 사용 실례 연구」, 『민족문화』 36(2010); 「한국전쟁기 궁중유물의 유출과 국립박물관으로의 이관 경위 고찰」, 『제1회 박물관·미술관 관련 학술논문 현상공모 수상작 논문집』(2010); 「『난중일기초고본』의 보존·관리 내력에 관한 고찰」, 『이순신 난중일기 및 서간첩 임진장초 보존처리』(2015) 등

본고에서 소개할 자료는 1970년 청와대 비서실에서 작성된 「고이박사 재산처리」의 첨부문서인 「李博士 財産台帳」이다. 이 자료는 1970년 2월 청와대에서 소장하고 있던 집기와 미술품을 이승만 전대통령의 유족에게 인계하면서 작성된 목록으로 총 311점이 기술되어 있다. 이 자료가 작성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960년 4·19이후 이화장에 소장되어 있던 미술품을 포함한 동산은 이후 조사가 진행되었고 한때 국립박물관으로 이관을 검토하였으나 일괄하여 청와대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1963년 이를 다시 국립박물관으로 이관하라는 지시가 내려지자 이 중 사유물로 분류된 것은 이화장으로 반환한다. 1970년에는 청와대에서 소장하고 있던 집기·미술품에 대해서도 이화장으로 반환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 「李博士 財産台帳」은 당시 작성된 목록이다. 본 대장에는 조선시대부터 당대를 아우르는 작가의 작품이 망라되어 있으나 사진이 첨부되어 있지 않고 기술사항도 소략하여 개개작품을 식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1960년 전후 경무대·이화장 소장 미술품의 규모를 일정부분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 이들 미술품의 소유권 귀속을 둘러싼 시비와 그 전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주제어: 청와대, 경무대, 이화장, 이승만, 대통령기록

이화장 소장 미술품의 4·19 이후 처리경위

—대통령기록관 소장 「李博士 財産台帳」(1970)의 검토—

윤인수(尹仁洙)

문화재청 칠백의총관리소 학예연구사

I. 머리말

1945년 8월 15일 광복부터 1961년 문화재관리국의 설치,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까지 16년간은 문화재에 대한 인식 부족과 관련 행정·법규의 미비에 더하여 6·25전쟁까지 겹으며 문화재의 안정적 보존과 관리에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노정했던 시기였다. 특히 이 시기는 ‘문화재보호법’은 물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정부미술품 보관관리규정’ 등이 제정되기 전으로 문화재 및 정부미술품, 재임 중 수증한 선물을 비롯한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 그 관리와 관련된 법규나 행정이 제도적으로 미비했기 때문에 일부 동산 문화재의 소재나 이동경위가 분명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 일부는 소재 확인 후 원상복구되기도 했던 시기이다.¹ 게다가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정상적인 정권교체를 통해 퇴임한 것이 아닌 갑작스러운 하야로 물러나 관저인 경무대 및 사저 이화장 소장 미술품을 비롯한 동산의 출처와 소유권에 대한 시비가 일기도 했었다.

이처럼 시비가 있기도 했지만, 바로 그 때문에 이후 정권에 의한 이승만 전대통령과 자유당 유력 인사 등에 대한 문화재급 미술품을 포함한 재산 추적 및 관련조사는 상당히 강력하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² 이렇게 허정 과도정부와 장면 내각, 5·16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차원에서 실시된 조사는 이승만 전대통령 일가의 재산은 물론 경무대·이화장 소장 문화재급 미술품 내역까지도 일정부분

1 확인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경무대가 창경궁 장서각에서 대출한 고도서인 『全唐詩』 등의 미반납, 국립박물관 소장품이었던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을 경무대 정원조경을 위해 무단 이전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尹宇景 첫 공판」, 『경향신문』, 1961. 12. 27. 3면; 「윤우경 첫 공판 개정」, 『동아일보』, 1961. 12. 28. 3면; 문교부, 「특정재산 조사의뢰에 관한 건」(1960년 7월 28일).

2 특정재산조사위원회, 「특정재산조사보고에 관한 건」(1960년 8월 30일); 문교부, 「전대통령 이승만씨 동산처리 방안」(1963).

파악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는데, 본고에서 소개할 자료는 현재 대통령기록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李博士 財産台帳」(이하 ‘대장’)으로 1970년 청와대에서 이화장으로 반환된 집기 및 미술품 내역이다.

이 자료는 미술품 목록의 명세로서는 세부 기술사항이 다소 불충분하고 사진도 첨부되어 있지 않아 기술된 미술품을 식별·특정하여 소장원원이나 이후 이동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당시 경무대 및 이화장의 문화재급 미술품 소장 규모와³ 그 소유권 귀속을 둘러싼 논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화 행정·법제사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

Ⅱ. 4·19 이후 이화장 집기·미술품 조사

1. 조사 경위

1960년 3월 15일 마산에서 시작된 4월 혁명은 이후 4월 19일과 20일 절정에 달하였고, 이승만 대통령은 결국 26일 전격적으로 하야 성명을 발표, 5월 29일 하와이로 망명을 떠나게 되었다. 하야 성명과 동시에 이승만 대통령 및 그 일가의 미술품을 포함한 動産은 경무대에서 사자인 이화장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⁴ 이후 해당 동산은 이승만 전대통령의 비서였던 黃圭冕과 禹濟夏에 의해 관리되었으며⁵ 이 전대통령은 이화장을 떠나기 3일전 황규면에게는 “나전칠기 병풍 그리고 자료들은 앞으로 박물관에 보관시켜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⁶

한편 허정 과도정부 수립이후 자유당 정권기간 유력 인사들의 부정축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점차 증폭되면서 이승만 전대통령 및 이기붕 일가의 전체 소유재산에 대해서도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6월 2일과 3일 양일간에 걸쳐 비서 황규면과 우제하, 동대문경찰서장 李命容에 의해 이화장 집기에 대한 전체 재물조사가 실시되어 3부의 목록이 작성되었다고 하나, 현재 이 목록은 따로 전해지지 않고 신문 보도상에 전제된 간략한 내역만이 전하고 있다.⁷ 또한 소장 문화재급 미술품에 대한 조사도 별도로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국립박물관 관장이었던 金載元과 보급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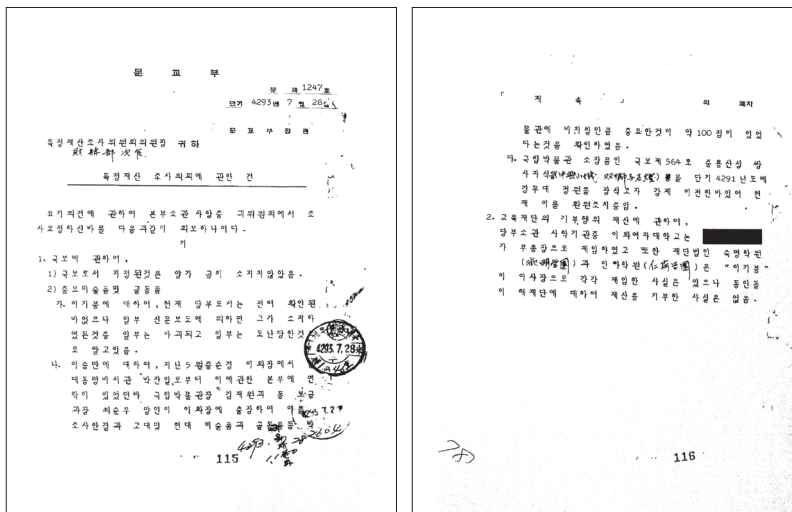
3 특정 인물이나 단체의 미술품 목록을 통하여 해당인물 및 단체 미술품 소장 규모 및 당대 거래 양태, 이동경로 등의 연구에 활용한 예는 김상엽이 대표적이다. 김상엽, 「일제시대 경매도록 수록 고서화의 의의」, 『동양고전연구』 23(2005), pp. 313-340; 김상엽, 「근대의 서화가 松隱 李秉直의 생애와 소장활동」, 『동양고전연구』 41(2010), pp. 477-516; 김상엽, 「故朴榮喆氏寄贈書畫類展觀目錄」을 통해 본 다산(多山) 박영철(朴榮喆, 1879~1939)의 소장활동」, 『文化財』 44(2011), pp. 70-85.

4 「경무대사계」 100, 『중앙일보』, 1972. 5. 31. 5면.

5 「李博士의 財産은 얼마?」(조간); 「主人은 말없이 떠나며」(석간), 『경향신문』, 1960. 6. 2. 3면.

6 「李花莊 財産目錄작성」(석간), 『조선일보』, 1960. 6. 3. 3면.

7 병풍 73점, 칠기병풍 12점, 現代畫 94점 등 일부 수량은 나타나고 있다. 「梨花莊에 남기고 간 李博士의 財産」(조간); 「珍貴한 병풍도 85個」(조간), 『경향신문』, 1960. 6. 15. 3면.



도 1. 문교부, 「특정재산 조사의뢰에 관한 건」, 1960년 7월 28일, 국가기록원 소장

장이었던 崔淳雨가 이화장을 직접 방문, 조사하여 박물관에 소장될 수준의 '고대 및 현대 미술품과 골동품' 100여 점을 확인하였다고 하나 역시 따로 목록이 전해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도 1).⁸

이렇게 경무대 및 이화장에 있던 미술품은 이승만 전대통령 및 그 일가나 비서실에서 직접 능동적으로 수집한 것이라기보다는 외부 수증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⁹ 이는 이 전대통령 취임이전부터 비서로 활동했던 尹錫五의 증언으로도 확인되는데 이 전대통령이 경무대에 입주한 1948년 8월 12일 이후 몇몇 유지로부터 조선시대 고가구류를 수증하여 집무실을 한국궁으로 꾸몄다고 회고하고 있으며¹⁰ 이후로도 대한민국미술전람회(이하 국전) 수상작을 비롯한 일부 미술품들은 작가들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¹¹ 그러나 경무대의 연원이 조선총독부 총독 관저였고 해방 이후 그대로 군정청 사령관 관저와 정부수립 이후 대통령 관저로 활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총독 관저에 소장되어 있던 집기나 미술품들 일부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정황상 추정된다.

통감부 시기부터 조선총독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통감 및 총독 관저에서 불상이나 회화 등 다양한 고미술품을 수증한 것은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으며¹² 당대(contemporary) 미술품도 1922년

8 문교부, 앞의 문서(1960년 7월 28일).

9 이승만 전대통령은 전적류에 대해서는 직접 수집·매입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안국동 고서점 通文館 李謙魯에 따르면 이 전대통령이 재임기간 직접 통문관에 두 차례 방문하여 판본을 특정할 수는 없으나 『東國輿地勝覽』 등 10여 책을 구입한 것으로 회고하고 있다. 이 「동국여지승람」은 「대장」에 수록되어 있지는 않다. 「새로 丹粧한 通文館」, 『조선일보』, 1967. 9. 26. 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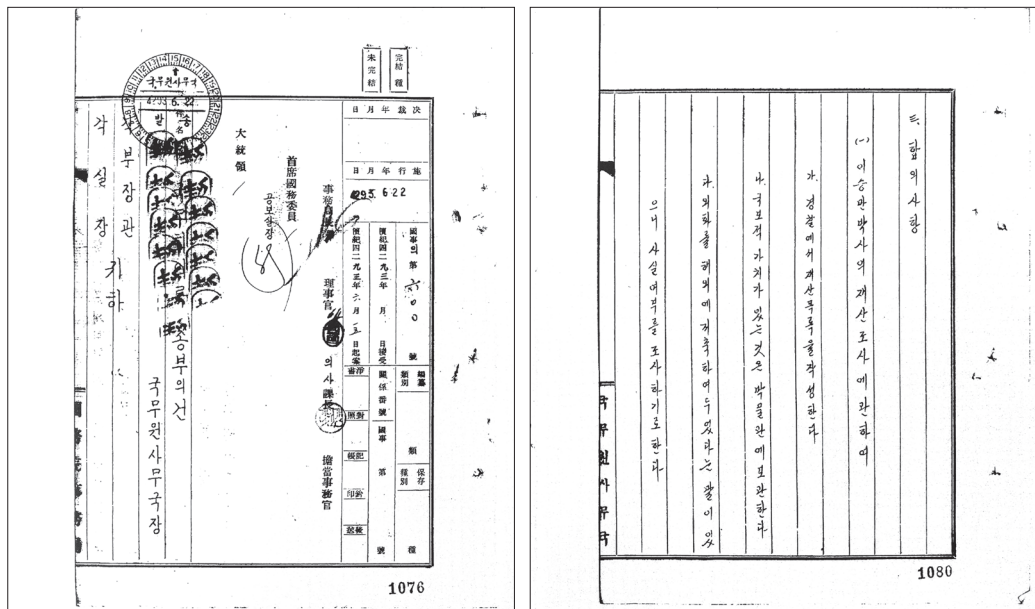
10 「경무대사계」 23, 『중앙일보』, 1972. 3. 1. 5면

11 「국전수상 그뒤 작품의 행방과 주인공들의 오늘」, 『조선일보』, 1964. 10. 15. 4면; 「경무대사계」 103, 『중앙일보』, 1972. 6. 3. 5면.

12 임영애, 「일명 '청와대 불상'의 내력과 의미」, 『미술사학연구』 296(2017), pp. 9-18; 문동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통신사행렬도>의 고찰」, 『美術資料』 95(2019), pp. 123-124.

부터 시작된 朝鮮美術展覽會(이하 선전) 수상작을 구입하여 소장하였다.¹³ 이는 뒤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대장」을 보아도 일부 확인할 수 있는데, 尹孝重의 ‘물동이 인 여인상(朝)’은 1940년 19회 선전 입선작이며 ‘활 쏘는 여인상(弦鳴)’은 1944년 23회 선전 특선 창덕궁상 수상작으로 조선총독부에서 구입하여 총독 관저에서 소장하고 있던 것을 경무대에서 인수한 것으로 추정된다.¹⁴

한편 과도정부는 6월 3일 개최된 제62회 국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이승만 전대통령 일가에 대한 재산조사를 의결하고 다음과 같은 방침에 합의한다(도 2).¹⁵



도 2. 국무원사무국, 「국무회의록 송부의 건」, 1960년 6월 15일, 국가기록원 소장

- 가. 경찰에서 재산목록을 작성한다.
- 나. 국보적 가치가 있는 것은 박물관에 보관한다.
- 다. 외화를 해외에 저축해 두었다는 말이 있으니 사실여부를 조사하기로 한다.

13 「鮮展과 督府買上品」, 『동아일보』, 1922. 6. 23. 2면; 「鮮展의 買上品」, 『동아일보』, 1923. 5. 27. 7면; 「미전 출품화 買上品 결정」, 『동아일보』, 1932. 6. 10. 2면; 손영옥, 『미술시장의 탄생』(서울: 푸른역사, 2020), p. 260.

14 조선사진통신사, 『조선미술전람회도록』 19(서울: 조선사진통신사, 1940); 「拔群, 珠玉가튼十點(鮮展)」, 『榮譽의 選定作家(感想)』, 『매일신보』, 1944. 6. 2. 3면;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근대문화유산 조각분야 목록화 조사 보고서』(대전: 문화재청, 2011), pp. 86-89, 99-101; 물론 해방 이후 작가 윤효중이 개인적으로 경무대에 선물로 제공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15 국무원사무국, 「이승만박사의 재산조사에 관하여」, 『국무회의록 송부의 건』(1960년 6월 15일).

국무회의 방침에 따르면 문화재급 미술품의 경우, 소장 연원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국유로 수용하여 국립박물관에서 소장하기로 했던 것으로 보이고 조사와 환수의 실행을 위해서 6월 22일 특정재산조사위원회 규정이 공포된다.¹⁶ 위원회는 외무부, 내무부, 재무부, 부흥부, 법무부, 국방부, 농림부, 상공부 차관을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재무부 차관이 맡도록 하여 이승만 전대통령 및 이기붕 일가가 소유한 동산 및 부동산과 금융자산은 물론 해외 자산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실시하여 8월 30일 조사를 종료하고 특정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내각에 제출하게 된다. 그러나 이 목록은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대한 내역만 수록되어 있어 이승만 전대통령 및 이기붕 일가가 소장했던 미술품이나 기타 동산문화재에 대한 내역은 나와 있지 않다.¹⁷

2. 처리 결과

특정재산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 장면 내각 국무회의에서는 9월 16일 이화장에 있던 사유물이 아닌 ‘집기·서화’ 등을 박물관이 아닌 청와대로 이전하여 청와대 비품으로 사용하도록 의결한다(도 3).¹⁸ 이에 대해 이승만 전대통령의 비서 황규면 등은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법적 근거도 없이 사유재산을 국가가 수용하는 것이라며 반발하였으나 재산관리인 입회하에 청와대 이전을 완료하게 된다.¹⁹

그런데 1961년 5·16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는 9월 11일 청와대에 옮겨진 이화장 동산 전체를 다시 국립박물관에 보관하라는 지시를 문교부에 내리고 10월 5일에는 문교부로 하여금 재산처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다. 이후 내무부 치안국장, 문화재관리국장, 국립박물관장 등으로 구성된 재산처리위원회는 1961년 12월 28일부터 1963년 7월 16일에 이르기까지 6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처리방안을 논의하게 된다.²⁰

위원회는 우선 출처를 따져 공사물을 분류하려 하였으나 분류 자체가 여의치 않자 일괄 국유화하기로 하고 문교부에 ‘수용’의 근거가 될 입법조치를 취해 줄 것으로 요청하였으나 문교부에서는 이에 부담을 느껴 반려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이승만 전대통령 본인이 이화장을 떠나기 직전 황규면에게 동산의 정부 기증의사를 피력했었다는 것을 근거로 이 전대통령이 정부에 동산을 ‘기증’하는 형식으로 일괄 국유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를 위해 당시 하와이 병원에서 요양하고 있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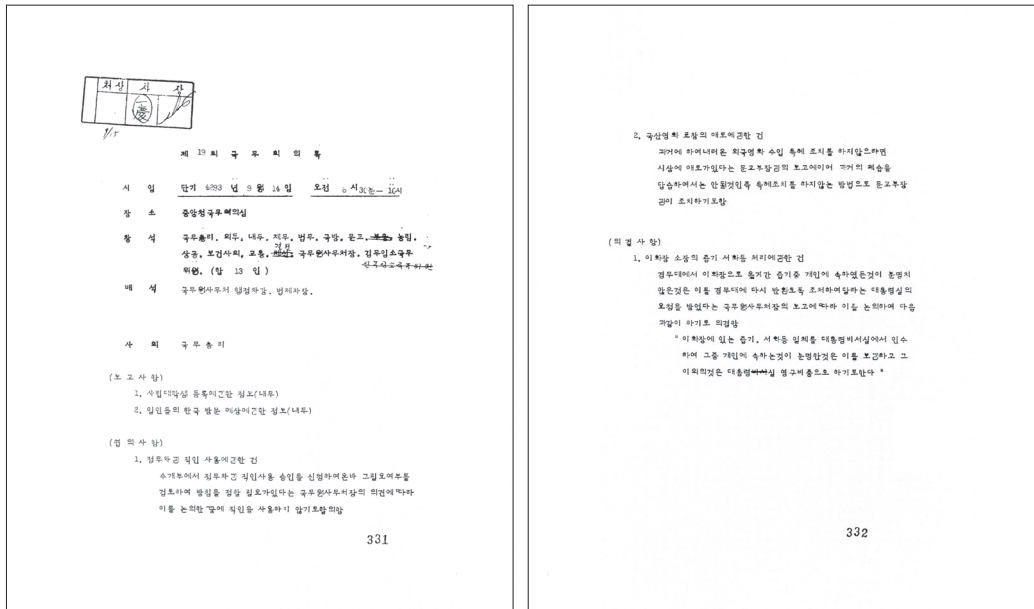
16 국무원사무국, 「훈령2호 특정재산조사위원회규정」(1960년 6월 22일).

17 특정재산조사위원회, 앞의 문서(1960년 8월 30일).

18 국무원사무처, 「이화장 소장의 집기 서화 등 처리에 관한 건」, 「국무회의록 송부의 건」(1960년 9월 14일); 「景武臺에 盤還 梨花莊에 옮긴 備品」, 『동아일보』, 1960. 9. 15. 3면.

19 「얼마나 될까 이박사재산 동산목록엔 1154점이나 지금은 거의 청와대로」, 『경향신문』, 1963. 8. 29. 6면; 「경무대사계」 103, 『중앙일보』, 1972. 6. 3. 5면.

20 문교부, 앞의 문서(1963년); 『경향신문』, 앞의 기사, 1963. 8. 29. 6면.



도 3. 국무원사무처, 「제19회 국무회의록」, 1960년 9월 14일, 국가기록원 소장

이 전대통령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이 전대통령 본인은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상태라 프란체스카 여사 등을 상대로 교섭을 진행하게 된다. 프란체스카 여사 등은 이 전대통령이 하와이에 도착한 당시 새롭게 상속관련 유서를 공증해 둔 상태로 이전의 구두나 서한에 의한 동산 기증의사는 효력이 제한적이며 일단 현재 청와대로 옮겨진 동산 전체를 다시 이화장으로 반환한 이후에야 기증을 비롯 처리 절차를 논의할 수 있다고 하여 사실상 기증 거부 의사를 표시한다.²¹

결국 1963년 7월 16일 재산처리위원회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위원회 내에 ‘공사물분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와대 내 미술품을 비롯한 동산에 대해 이 전대통령 일가 사유물과 공유물을 분류하는 작업을 실시하여 국유재산으로 분류된 것은 청와대에 존치하고 사유재산으로 분류된 것은 이화장에 반환하기로 결정한다.²² 이렇게 분류작업이 마무리된 후 1964년 2월 10일 이승만 전대통령의 사유재산으로 분류된 미술품을 포함한 동산은 총무처를 통해 당시 하와이에서 입원중이던 이승만 전대통령의 양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인계할 것이 결정된다.²³ 그러나 이러한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 전대통령측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1962년부터 줄곧 청와대로 옮겨진 동산 전체를 이승만 전대통령의 사유물이라고 주장하며 이화장으로 모두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21 문교부, 앞의 문서(1963년), pp. 7-9.

22 문교부, 앞의 문서(1963년), p. 3.

23 대통령비서실, 「李承晩私有財産 引受法定代理人」(1964년 2월 10일).

위한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려 하였다.²⁴

당시 어떤 기준으로 공사물 분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관련 제도와 법규정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경무대 집기·미술품의 출처 파악 및 대통령이라는 정무직 신분의 선물 수증행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가 전제되지 않았다면 이를 명확하게 분류하는 것은 실무적인 어려움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그나마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었던 법령은 1949년 제정된 ‘귀속재산처리법’ 및 그 근거가 되는 ‘한미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1948)’,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33호 조선내소재일본인재산권취득에관한건(1945)’을 검토해 볼 수 있었을 것이다.²⁵ 해당 미술품이 조선총독부 총독관저 인수품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된다면 이를 적용하여 국가귀속할 수도 있었을 것이나 대한민국 정부가 총독관저를 미군정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경무대로 사용했을 당시 인계 집기 및 미술품에 대한 재물조사나 목록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이러한 미술품에 대한 구입·기증관련 조선총독부의 공문서 기록 등도 확보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입증하여 국유화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정부수립 이후 수증한 내외빈 선물 및 미술품의 경우 더욱 국유 근거가 약해지는데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의 외빈 선물을 국유로 규정하는 ‘공직자윤리법’은 1981년 제정되었다.²⁶ 특히 대통령

24 『경향신문』, 앞의 기사, 1963. 8. 29. 6면; 「問題의 財産權은 아직도 말썽거리, 뜬해진 連絡 梨花莊 一部는貰주어」, 『조선일보』, 1965. 3. 25. 6면; 「李博士遺産」是非, 『조선일보』, 1965. 7. 27. 7면.

25 제2조 본법에서 귀속재산이라 함은 단기 4281년 9월 11일부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을 지칭한다. 단, 농경지는 따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한다.(중략)

제5조 귀속재산중 대한민국헌법 제85조에 열거된 천연자원에 관한 권리 및 영림재산으로 필요한 임야, 역사적 가치있는 토지, 건물, 기념품, 미술품, 문적 기타 공공성을 유하거나 영구히 보존함을 요하는 부동산과 동산은 국유 또는 공유로 한다.[귀속재산처리법(법률 제74호, 1949.12.19.)]

제5조 대한민국 정부는 재조선 미군정청 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귀속된 일본인 공유 또는 사유 재산에 대하여 재조선 미군정청이 이미 행한 처분을 승인하고 공식화함.[한미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1949.9.11.)]

제2조 一九四五年 八月 九日 以後 日本政府, 其의 機關 또는 其 國民, 會社, 團體, 組合, 其 政府의 其他 機關 或은 其 政府가 組織 또는 取締한 團體가 直接間接으로 或은 全部 又は 一部를 所有 또는 管理하는 金, 銀, 白金, 通貨, 證券, 銀行勘定, 債券, 有價證券 또는 本軍政廳의 管轄內에 存在하는 其他 全種類의 財産 及其 收入에 對한 所有權은 一九四五年 九月 二十五日附로 朝鮮軍政廳이 取得하고 朝鮮軍政廳이 其 財産全部를 所有함.[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三十三号 朝鮮內所在日本人財産權取得에關한件(1945.12.6.)]

26 제3장 선물신고

제15조 (외국정부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신고)

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외국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外國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 또는 당해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선물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선물의 국고귀속등)

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선물은 신고즉시 국고에 귀속된다.

② 신고된 선물의 관리·유지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공직자윤리법(법률 제3250호, 1981.12.31.)]

이 국내에서 수증한 선물에 대한 국가소유권과 관리 규정까지 마련된 것은 2020년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이다.²⁷ 정부미술품 관리규정 역시 2002년과 2012년에서야 조달청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련 고시를 마련하였다.²⁸ 이렇듯 당초 1961년 12월 28일 1차 회의에서 공사물 분류를 시도했다가 일괄수용-국유화, 일괄기증-국유화로 논의 방향이 바뀐 것도 국가귀속의 법률적 근거를 찾기가 여의치 않았던 사정이 있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Ⅲ. 1970년 청와대 집기 및 미술품의 이화장으로 추가반환

1. 반환 경위

이렇게 1963년 공사물분류소위원회에서 국유재산으로 분류된 미술품 포함 동산은 이후 청와대에서 계속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유물로 분류되어 반환이 결정된 동산도 전체 반환이 아니라면 인수하지 않겠다는 유족 측의 의사로 바로 이화장으로 옮겨지지 못하고 중앙청의 총무처 창고에 보관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1970년 2월 4일에 이르러서야 이화장으로 반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²⁹ 당시 사진은 1970년 2월 3일 적치 상태로 촬영되어 「이승만 대통령의 유품」이라는 기록철로 국가기록원에 남아있다(도 4).³⁰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국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청와대에서 보관하고 있던 나머지 동산까지도 필수적인 물품을 제외하고는 이를 모두 이화장으로 반환하라는 지시를 내려 2월 19일경 반환을 마무리하게 된다.³¹ 이 때 대통령비서실에서는 반환에 대한 「고 이박사 재산처리」라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반환동산에 대한 전체 대장인 「李博士 財産台帳」을 첨부하였는데, 이 보고서와 대장은 현재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서 공개자료로 소장하고 있다.

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중략)

나.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상징물(대통령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물품 및 행정박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대통령선물[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국내 단체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및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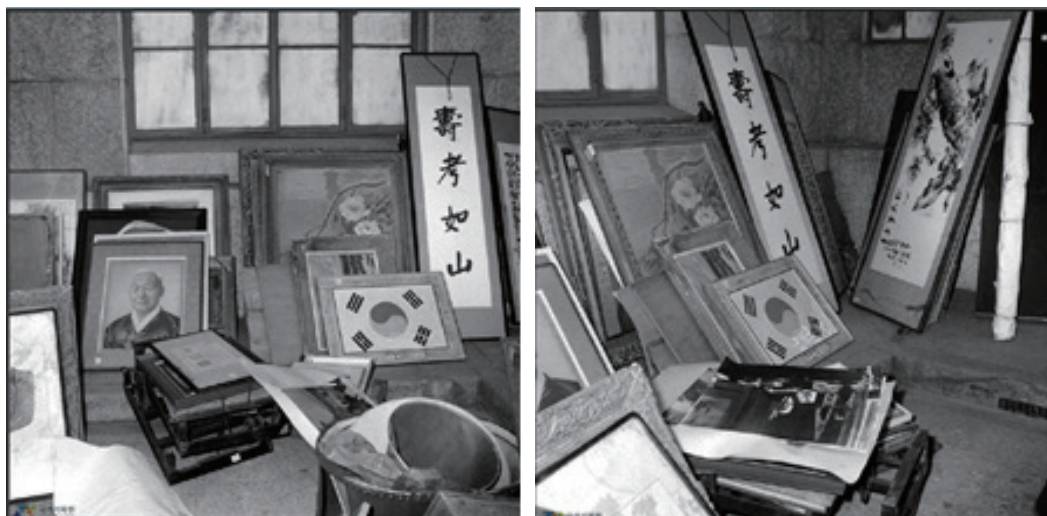
제3조(소유권)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며, 국가는 대통령기록물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573호, 2020.12.8.)]

28 정부미술품보관 관리규정(조달청고시 제2002-5호, 2002.10.12.); 정부미술품 운영규정(문체부고시 제2012-35호, 2012.10.5.).

29 「李博士 遺品인계」, 『조선일보』, 1970. 2. 4. 4면.

30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이승만 대통령의 유품」(1970년 2월 3일).

31 대통령비서실, 「고이박사 재산 처리」(1970년 2월 19일).



도 4. 1970년 2월 3일 중앙청에서 촬영된 「이승만 대통령의 유품, 사진, 국가기록원 소장

2. 대통령기록관 소장 「고이박사 재산처리」의 첨부문서 「李博士 財産台帳」의 내용

현재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이박사 재산처리」(기록 건번호 : 1A00614174953924)는 1970년 2월 19일 대통령비서실에서 李炳豪 비서관에 의해 작성·보고된 것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사항과 이화장으로서의 물품 반환경위가 간단히 나타나고 있다. 「李博士 財産台帳」은 이 보고서의 첨부문서로 전체 반환물품의 수량과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대장에 따르면 반환물품은 형태별로 병풍 45점, 목병풍 8점, 족자 34점, 서양화 12점, 동양화 16점, 서예 4점, 자수 4점, 사진 2점, 가구류 186점으로 분류되어 총 311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장의 기술항목은 연번과 내용/품명, 규격, 작자, 비고이며 사진은 첨부되어 있지 않다. ‘내용’으로 기술된 서화류의 명칭은 대부분 대장 작성자가 작품의 소재, 형태 등을 보고 임의로 부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작자가 직접 命名하거나 작품 자체의 畫題 등에서 추출한 명칭도 아닌 것으로 보이며 사진이 첨부되어 있지도 않아 작품을 특정하고 식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대장에 기술된 작가로는 안평대군, 김시습, 김명국부터 김홍도, 이인문, 정선, 柳德章, 李上佐, 김정희, 장승업, 申緯, 홍선대원군, 민영익 등 조선시대 서화가부터 趙錫晉, 李道榮, 姜弼周, 이상범, 손재형, 許百鍊, 池運永, 柳熙綱, 劉康烈, 趙邦元, 김환기, 윤효중, 이응노, 金寅昇, 金正淑 등 당대 작가들까지 아우르고 있어 주목되지만 작자와 작품의 부합여부 역시 확인할 수 없다. 그밖에 ‘비고’에는 ‘가구류’ 항목에 한해 소장연원을 기술해 놓은 것도 있는데, 1959~1961년 주한미군 사령관을 역임했던 카터 B. 매그루더(Carter B. Magruder)로부터 받은 은쟁반 등 기물과 증정한 국내의 주요 인사, 단체를 기술하였다.

대장에 기술된 분류항목대로 먼저 병풍 항목을 살펴보면 안평대군과 김정희, 근대 서예가인 손재형, 유희강의 ‘書藝’가 눈에 띄며, 대원군의 ‘蘭花’, 신위의 ‘竹과 書藝’, 이인문과 허백련, 지운영의 ‘山水畫’, 1954년 3회 국전 공예부문 국무총리상 수상작인 유강열의 ‘香紋圖’ 등이 있다.³² 목병풍 항목에서는 沈周 등이 합작했다는 ‘山水畫’가 나타나고 있으며, 족자 항목에서는 대원군, 민영익의 ‘蘭草’, 김명국의 ‘師人物圖’, 정선의 ‘山水(石潭書院)’, 김홍도의 ‘山水’ 그리고 장승업의 영모도들이 눈에 띈다. 서양화/동양화 항목에서는 김환기의 ‘靜物’, 이상범과 허백련의 산수화들 그리고 조석진의 ‘神仙圖’, 이응노의 ‘八角亭’, ‘風景畫’, 1955년 4회 국전 동양화부문 문교부 장관상 수상작인 조방원의 ‘曉’가³³ 있으며 이는 1959년 4월 24일 아세아영화제 영화인 대표 일행이 경무대를 방문하여 기념촬영했을 당시의 사진에서도 확인이 된다(도 5).³⁴ 또 일본 작가 하세가와 노보루(長谷川昇, 1886~1973)의 ‘富士山’, 미카미 토모지(三上知治, 1886~1974)의 ‘靜物’도 눈에 띈다. 조각은 ‘가구류’ 항목에 수록되어 있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윤효중의 ‘활 쏘는 女人像’, ‘물동이 인 女人像’이 확인된다.



도 5. 1959년 4월 25일 아세아영화제 영화인 대표 경무대 방문 기념사진(상단 조방원의 ‘曉’), 국가기록원 소장

32 국립현대미술관, 『역대국전수상작품도록』(서울: 바른손, 1977), p. 21.

33 국립현대미술관, 앞의 도록(1977), p. 156.

34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아세아영화제영화인대표 경무대방문기념 촬영』(1959년 4월 24일). 이밖에도 국가기록원에서 소장중인 1950년대 경무대를 방문한 국내외 각계인사들의 기념사진에서 경무대 내부모습과 미술품들이 진열된 모습을 볼 수 있다.

3. 반환 이후

이 대장에 수록된 미술품들이 그대로 이화장에 소장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출이 확인되는 작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윤효중의 ‘弦鳴’으로 알려진 ‘활 쏘는 女人像’은 1972년 프란체스카 여사가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하였고³⁵, ‘물동이 인 女人像’은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삼성에서 구입하여 리움에서 소장하고 있다가 2021년 역시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되었다.³⁶ 물론 이외에도 매도나 기증 등으로 반출된 작품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1985년 8월 14일 자정 무렵에는 이화장에 절도 사건이 발생하여 남아있던 미술품 일부가 도난당하게 된다. 당시 이화장은 독립된 유품창고를 두고 있었으나 ㄷ자 본채 남측거실 등에도 일부 미술품을 보관하고 있었다.³⁷ 범인들은 유품창고는 그대로 두고 본채로만 방법창을 부수고 침입하여 이승만 전대통령 재직당시 기념품, 집기는 물론 미술품까지 절취하게 되는데, 이에 동대문경찰서에서는 전담반을 구성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문화재관리국은 한국고미술협회 및 세관과 지방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도난품의 매매, 해외반출을 막고자 하였다. 당시 문화재관리국이 파악한 추정도난품 목록이 (도 6)이다.³⁸

도 난 추 정 유 품 현 황			
순번	유 품 명	수량	비 고
1	시 화	1점	역화경관 걸려있어 독수미 1마 비치 않아 있음.
2	여섯쪽 판시별품	1점	
3	여섯쪽 식전별품	1점	태종명제즉시 기념시전 100여점
4	책 자	1점	
5	낙시대선본	1점	
6	친필한시첩(종12호)	1점	이백사가 지은 121수의 판시첩
7	이백사내외 가족구두, 장복	각1점	
8	침거문간	1점	만 문양 있음
9	미화작자물변	1점	
10	신선도 2점	1점	
11	풍속도별품 (종합서)	1점	
12	시예별품 (8곡, 2곡)	1점	
13	산수화 별품 (2곡)	1점	
14	수예서 별품 (6곡)	1점	
15	동계거울	1점	
16	자계서물함	1점	
17	군학명사	1점	
18	독파취품(종경자 물등)	1점	

도 6. 1985년 8월 16일 문화재관리국 파악 도난 추정 유품 현황, 국가기록원 소장

35 장엽, 「국립현대미술관 40년사 연구」, 『국립현대미술관연구논문』 1(2009), p. 91.

36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앞의 보고서(2011), pp. 87-88; 「이중섭 ‘황소’·‘흰소’...모습 드러낸 이진희 컬렉션」, 『한겨레신문』, 2021. 5. 7. 온라인판(<https://www.hani.co.kr/arti/culture/music/994326.html>).

37 「李承晩박사 遺品도난」, 『중앙일보』, 1985. 8. 16. 11면; 「故 李承晩박사遺品 도난」, 『경향신문』 1985. 8. 16. 11면.

38 문화재관리국 문화재2과, 「이화장(이박사) 소장도난유품 회수협조」(1985년 8월 16일).

이 목록 역시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한 추정인데다 기술항목이나 내용이 매우 소략하여 정확한 수량이나 해당 물품을 특정하여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10월 18일 범인들이 잡히면서 서화는 26점, 공예품 17점 등이 회수되어 당초 추정 목록과 차이가 있으며 일부 작품의 작가는 김은호, 張遇聖으로 확인되기도 하였으나 당시 전체 회수품 목록이 전해지지는 않고 있어 정확한 수량과 작품이 특정되지는 않는다.³⁹

한편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에서는 2009년 이화장 본채 전시실 등에서 전시중인 유물 209건에 대해 사진과 함께 목록화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목록과 1970년 대장을 대조한 바 김인승의 이승만, 프란체스카 여사 초상화와 손재형의 10폭 서예병풍, 6폭 자수 학병풍, 1951~1956년 서울시장을 역임했던 金泰善과 대한양회 사장이었던 李東俊이 각각 기증했던 古書는 특징이 가능했고 이들은 현재도 이화장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⁴⁰

IV. 맺음말

1960년 4월 기준 경무대와 이화장에서 소장하고 있던 집기와 미술품은 이승만 전대통령 하야 이후 허정 과도정부, 제2~3공화국 정부를 거치면서 조사가 실시되었고 국립박물관으로 이관이 고려되기도 하였으나 일괄하여 청와대로 이전되었다. 이후 소유권 귀속을 둘러싼 시비 끝에 1970년 2월 최종적으로 이화장에 반환되었다. 이렇게 정부 수립이후 초대 대통령의 하야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관저와 사저에 보관되어 있던 미술품을 비롯한 집기물품의 소유권이 정부에 있는지 전대통령 자연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는 공사물 분류 기준이나 관련 법령이 미비했던 당시로서는 매우 어려운 문제였으며 결국 이를 10여 년 만에 이화장에 반환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⁴¹

반환 당시 작성된 '李博士 財産台帳'은 수록된 미술품들 대부분이 특정·식별하기 어렵다는 한계는 있지만 조선시대부터 당대에 이르기까지 저명작가들이 망라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울

39 「梨花莊절도범」 검거, 『경향신문』, 1985. 10. 8. 11면; 「梨花莊절도 主犯검거 以堂그림등 百점회수」, 『경향신문』, 1985. 10. 10. 7면.

40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2009 이화장 소장유물 목록화 조사연구 보고서」(2009), pp. 244-247, 253-254, 259-260, 315-318. 참고로 1970년 대장에서 단순히 '作者 孫在馨 屏風-書藝'로 기술된 작품은 李珪 이순신 등 한시를 손재형이 여러 서체로 쓴 것이며 '作者 翠山 鶴(繡)'으로 기술된 작품은 1950년 국무위원 일동이 기증한 자수 병풍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品名 古書 備考 金태선증'과 '品名 古書 備考 李東俊贈'으로 기술된 고서는 각각 책갑이 포함된 법첩인 『絳帖』 12책과 『退溪文集』 17책인 것으로 확인된다.

41 미국의 경우도 1978년 '대통령 기록물법'(Presidential Records Act) 제정 이전까지 역대 대통령들은 재임기간 동안 생산한 문서 기록물이나 수증 선물들을 개인자산으로 여겨 본인의 상속인이나 지인에게 증여해 왔으며 이렇게 1978년 이전 민간에 반출된 대통령 기록물에 한해서는 법제정 이후에도 개인 소유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맨지 번드클로트 저, 이상민 역,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접근 이용: 현황과 과제」, 『아키비스트가 알아야 할 기록관리의 법적 쟁점』(대전: 국가기록원, 2009), pp. 225-230; Nathan Raab·Luke Barr, *The Hunt for History*(New York: Scribner, 2020), pp. 173-177.

러 이 대장은 1960년 경무대와 이화장에서 소유하고 있던 미술품의 규모를 일정부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대장이 작성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은 4·19이후 당시 정부가 전임 대통령의 관저와 사저에서 소장하고 있던 미술품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처리방침을 취했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화행정적·법적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특정·식별되는 작품에 한해 가능하다면 1960년 전후로 소장경로 추적 등과 같은 추가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투고일 2022. 2. 24. 심사개시일 2022. 4. 8. 게재 확정일 2022. 5. 20.

참고문헌

【1차 문헌(공문서)】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 「아세아영화제영화인대표 정부대방문기념 촬영」(1959년 4월 24일)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 건번호: CET0021488].

_____, 「이승만 대통령의 유품」(1970년 2월 3일)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 건번호: CET0029692].

국무원사무국, 「이승만박사의 재산조사에 관하여」, 「국무회의록 송부의 건」(1960년 6월 15일)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 건번호: BA0085193].

_____, 「훈령 2호 특정재산조사위원회규정」(1960년 6월 22일)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 건번호: BA0188340].

국무원사무처, 「이화장 소장의 집기 서화 등 처리에 관한 건」, 「국무회의록 송부의 건」(1960년 9월 14일)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 건번호: BA0085196].

대통령비서실, 「李承晩私有財産 引受法定代理人」(1964년 2월 10일) [대통령기록관 소장 기록물 건번호: 1A00614174954876].

_____, 「고 이박사 재산처리」(1970) [대통령기록관 소장 기록물 건번호: 1A00614174953924].

문교부, 「특정재산 조사의뢰에 관한 건」(1960년 7월 28일)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 건번호: BA0214219].

_____, 「전대통령 이승만씨 동산처리 방안」(1963)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 건번호: BA0084376].

문화재관리국 문화재2과, 「이화장(이박사) 소장도난유품 회수협조」(1985년 8월 16일)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 건번호: CA0014097].

특정재산조사위원회, 「특정재산조사보고에 관한 건」(1960년 8월 30일)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 건번호: BA0214219].

【도록 · 보고서】

국립현대미술관, 「역대국전수상작품도록」, 서울: 바른손, 1977.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2009 이화장 소장유물 목록화 조사연구 보고서」, 대전: 문화재청, 2009.

_____, 「근대문화유산 조각분야 목록화 조사 보고서」, 대전: 문화재청, 2011.

조선사진통신사, 「조선미술전람회도록」 19, 서울: 조선사진통신사, 1940.

【논저】

멘지 번드클로트 著, 이상민 譯,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접근 이용: 현황과 과제」, 『아키비스트가 알아야 할 기록관리의 법적 쟁점』, 대전: 국가기록원, 2009.

문동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통신사행렬도〉의 고찰」, 『美術資料』 95, 2019.

손영옥, 「미술시장의 탄생」, 서울: 푸른역사, 2020.

임영애, 「일명 ‘청와대 불상’의 내력과 의미」, 『미술사학연구』 296, 2017.

장엽, 「국립현대미술관 40년사 연구」, 『국립현대미술관연구논문』 1, 2009.

Raab, Nathan · Barr, Luke, *The Hunt for History*, New York: Scribner, 2020.

李博士 財産台帳

1970. 2.

大統領 秘書室

100

0125

15

9-12-3

10755 10851

- 1 -

總 括

101

0126

10756 10852

9-12-4

- 2 -

品 名	数 量
屏 風	45
木 屏 風	8
簾 子	34
西 洋 画	12
東 洋 画	16
書 芸	4
刺 繡	4
夢 具	2
家 具 類	186
計	311 点

102

0127

16

9-12-4

10757 10853

- 3 -

屏 風

No.	表示 No.	内 容	規格	作 者	備 考
1	1	書芸	9 10	上院, 安平文君	
2	2	人物画	12		詳
3	3	菊花	4	石敬, 文院君	
4	4	繡 (柳家画)	6		詳
5	5	歌母	6	朴斗号	
6	6	秋庭山国	2	魏草	
7	7	書芸	2	魏文, 金正基	
8	8	"	10	石邦, 尹用平	
9	9	均画	4	崔道, 柳德章	
10	10	"	4	"	
11	11	山水画	2	魏道, 許百餘	
12	12	歌母 (繡)	6	朴斗号	
13	13	风景, 人物	6	白蓮, 池雪英	
14	14	花鳥	6	日田斗合	
15	15	竹斗 書芸	8	申 綽	
16	16	繡	6	朴斗号	
17	17	十張生国 (作馬)	10		未詳
18	18	繡	4	"	"
19	19	書芸 (繡)	6	"	103
20	20	花鳥 (-)	6	"	"
21	21	山水画	6	李寅文	
22	22	葡萄画	8	周山	
23	23	書芸	10	孫在馨	
24	24	" (繡)	8	"	未詳
25	25	"	2	崔道, 金相華	
26	26	山水画	6	白蓮, 池雪英	
27	27	繡 (葡萄画)	6	朴斗号	0129
28	28	山水画 (中國)	10	"	未詳

67

9-12-5

10758 10854

- 4 -

No.	表示 No.	内 容	規格	作 者	備 考
29	29	書芸 (繡)	6	未詳	
30	30	松鶴図	2	許百鍊	
31	31	香林園	4	劉唐照	
32	32	山水画	8	許百鍊	
33	33	松鶴	8	楊慶鏞	
34	34	鶴 (繡)	6	翠山	
35	35	繡 (書畫品)	10	未詳	
36	36	書芸	8	劉如 柳照綱	
37	37	。	8	金時習	
38	38	山水画	8	荀震	
39	39	書芸 (繡)	8	未詳	
40	40	繡	6	林双	
41	41	牡丹 (繡)	8	金王取	
42	42	繡	6	未詳	
43	43	。	4	。	
44	44	龍圖十景	10	生元	
45	45	風景	2	安 岳	
104					
10789 10885					0129

-5-

木屏風					
No.	表示 No.	内 容	規格	作 者	備 考
46	46	花鳥 (木屏)	6 切	。	
47	47	山水画	4	沈周等6作	未詳
48	48	水中画 (遊山圖)	6	。	
49	49	。(木屏)	6	。	
50	50	人物 (+)	4	。	
51	51	花 (+)	4	。	
52	52	唐会樓 (+)	2	。	
53	53	人物 (木屏)	。	。	
105					
10790 10886					0130

-6-

簾子					
No.	表示 No.	内 容	規格	作 者	備 考
54	1	蘭草 (墨画)	石版、大尺	。	
55	2	山水画	紙、捲	。	
56	3	石巻全図	楊蔭圃	。	
57	4	蘭草 (墨画)	關味廬	。	
58	5	山人物图	通孝、金明園	。	
59	6	石鏡閣	譚士、吳尚同	。	
60	7	兩松老人	小畠、趙錫常	。	
61	8	山水画	檀園、金友道	未詳	
62	9	竹 (墨画)	。	未詳	
63	10	松表徑臥図	白蓮、池雪英	未詳	
64	11	花鳥	。	未詳	
65	12	。	吾園	。	
66	13	山水 (石巻書院)	謙青	。	
67	14	神仙图	學園	。	
68	15	。	玄青	。	
69	16	竹 (墨画)	關味廬	。	
70	17	山水画	小亭	。	
71	18	書芸 (文)	阮堂	。	
72	19	竹 (墨画)	幽堂、柳澤章	。	
73	20	山水画	吾園	未詳	
74	21	孔雀	。	未詳	
75	22	人物	南松老人	。	
76	23	女人	雨聲、林果珠	。	
77	24	牡丹图	吾園、張永業	。	
78	25	花鳥	。	未詳	
79	26	。	。	。	
80	27	書芸	山川、柳雪吉	。	
81	28	山水画	貫前、李道榮	。	
106					0131
10791 10887					

-7-

No.	表示 No.	内 容	規格	作 者	備 考
82	29	墨画	。	未詳	
83	30	書芸 (三才)	。	。	
84	31	防勝	。	崔泓熙	
85	32	魏国地圖 (文)	。	。	
86	33	未表具 (文)	。	。	
87	34	禽鳥義義国	。	吾園、張永業	
107					
10792 10888					0132

-8-

西洋画					
No.	表本 No.	内 容	模 様	作 者	備 考
88	1	富士山		長谷川 昇	
89	2	心、夫人像		李義国	
90	3	抽象画			未詳
91	4	人物			
92	5	静物		金燮基	
93	6			三上知治	
94	7	八角亭		観 竜	
95	8	静物 (과과)		丹 翠	
96	9	風景点			未詳
97	10	호랑이			
98	11	肖像画 (李叔士)		金寅昇	
99	12	人物 (三女史)			
東洋画					
100	13	吐吐漢		孫田	
101	14	山水画		青田、李象範	
102	15	踏		趙邦元	
103	16	山水画		青田、李象範	
104	17	萬里長城		趙田國小	
105	18	山水画		琴史	
106	19				未詳
107	20	花鳥		張田、許 珉	
108	21	山水画		湯漢樹	108
109	22			許百鍊	
110	23			姜令	
111	24	花鳥 (墨画)			未詳
112	25	神仏图		小味、趙錫香	
113	26			素研、趙明向	
114	27	竹画		清澤	0133
72				10793 10889	

- 9 -

115	28	風景画		考應春	
116	29	天橋永裕			料
117	30	書畫		斗南	料
118	31			申隣	
119	32			仁淑	料
120	33	花鳥			
121	34	人物			
122	35	竹鶴			
123	36	花鳥		正淑	
124	37	吳			
125	38	李叔士			
3				10794 10890	109
					0134

- 10 -

東洋類					
No.	表本 No.	品 名	数 量	形 態	備 考
126		대나무 판	22		
127		꽃자리	3		
128		古香	1	小	강미선 중
129			1	大	李象範 贈
130		과개 장	1	黑色	
131		장판	1	桌上用	在B號地方
132			2	人物 (유자화)	
133			3	四角型	
134		머리장			126/127 李象範 贈
135		銘盤 古子	1	円型	文藝2部 17-1号
136		八角型銅盤 藥子2大			
137		배 3형			136-137 138 李叔士 贈
138		철대 머리장			
139		中華美術圖集			
140		유리 접		大、円型	
141				四角	
142		石膏		男5線像	
143		銅像			
144		사기 잔아리		분홍색	
145		차기		白色	
146					
147		銘盤 殘반			CATHER B. NAGUWER TAKEAST STONE
148					
149		花瓶	4	大	110
150			7	中	
151			1	小	
152		차기 술병	1	白銅色	10795
153		수반	2	白아울상	0135
74				10891	

- 11 -

154	39	銅像	1	大角、과개	
155			1	상자	
156			1	강철、中國型	
157			1	四角、과개	
158			1	文藝式、黑色、과개	
159			1	四角、黑色	
160			1	文藝式、黑色	
161			1	강철、과개	
162		머리장	1	赤色	
163		作硯台	1		
164		花硯台	1		
165		은정반	1	大	李叔士 贈
166			1	大	A. HANPER
167		은정반	1	小	
168		은정반	1	中	
169		茶座	1		
170		椅子	1		
171		장반창	3	黃木、綠	
172		상자	5	白色	
173		茶盒台	2		
174		반상	3	円型	
175			6	四角	
176		은정반	1		
177		茶硯台	2	茶	111
178		과개 장	1	黑	
179		食卓	1	四角	
180			1	円型	
181		茶盒台	2		0136
		과개 장	1	과개	10796
75				10892	

- 12 -

182	관	1	彫刻. 장역
183	玄陰	2	반역
184	大理石	1	円形
185	가까움	1	黑色
186	"	2	柔"
187	관악이	1	小. 龍線
188	모듬나무장	1	多體/2로
189	리본 및 러플보	1組	補加物/2로
190	귀족 꼬리	1	
191	관 받침	2	緯
192	찰 쓰는 女像	1	彫刻
193	물결이 긴 "	1	"
194	침대	1式	
195	移動式 硯硯	1	
196	銀鑲 茶袍	2	中
197	銀鑲 巾	10	中
198	침자리	1	小
199	銀鑲食器 硯	35	
200	리모드 관	3	
201	완공귀 圓圓硯	10	

112

76

12-14

10797 0137
10893

The Management of Artworks in the Collection of Ihwajang House after the April 19 Student Revolution: An Examination of the “Property Ledger of Dr. Rhee” (1970) in the Collection of the Presidential Archives

Yoon Insu*

This paper focuses on the document “Property Ledger of Dr. Rhee,” which was a supplement to the *Disposal of the Late Dr. Rhee’s Property* written by the secretarial office of the Cheongwadae (the Korean presidential residence) in 1970. The document contains a list of 311 items, including furnishings and artworks, once owned by President Syngman Rhee. The items had been in the collection of the Cheongwadae, but in February 1970 they were transferred to the family of the late President Rhee. The background for creating this list is as follows. After the April 19 Student Revolution in 1960, a survey was conducted of Rhee’s movable assets, including artworks in his private residence Ihwajang. Their transfer to the National Museum was discussed at one point, but it was decided to use them at the Cheongwadae instead. In 1963, however, the transfer of these assets to the National Museum was ordered, and some duplications of the private possessions were sent to Ihwajang House. In 1970, furnishings and artworks stored at the Cheongwadae were also returned to Ihwajang House, and the “Property Ledger of Dr. Rhee” document was produced. This ledger lists works by artists from the Joseon period through the 1960s. It is difficult to identify each of these artworks since no photos are attached and the details provided are minimal. Nevertheless, this ledger is valuable in that the scale of artworks in the collection of the Gyeongmudae (the former name for the Cheongwadae) and Ihwajang House can be partially identified and in that it helps us understand how the issues surrounding the reversion of ownership of these artworks were resolved.

Keywords: Cheongwadae, Gyeongmudae, Ihwajang House, Syngman Rhee, Presidential Records

* Curator at Chilbaeguichong Shrine Management Office of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